

한국의 현대 패션과 젠더 가치관

허예은·하지수*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요약

본 연구는 근대화 혹은 서구화 등 단편적인 관점으로 이해되는 한국 복식사에서, 젠더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근현대 복식사를 고찰하여 한국 현대 패션의 문화적 특성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서구 사회에서 젠더 가치관에 따른 복식의 변화와 한국 젠더의 특수성 및 한국 근현대 복식사를 고찰하였다. 한국 젠더의 특수성으로, 이중적 구도와 복잡한 중층적 구조를 도출하였으며 개화기 이후 국가주의적 젠더 정치 하에 남성 및 여성 복식은 엄격한 사회적 통제를 받았고 한국전쟁 이후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면서 다양한 패션 스타일이 유행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헌 연구 및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으며, 한국의 젠더와 패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20대, 30대의 남성 및 여성 총 2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횡단적 지표화 방식을 사용하였다. 한국의 젠더와 패션에 대한 인식을 고찰한 연구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에 비해 성 역할 고정관념은 많이 허물어졌으나 가정에서 남성이 경제적 소득을, 여성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었다. 또한 남성 및 여성의 성격, 행동, 역할 등을 구분하는 고정관념이 남아 있어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가치관은 성적 정체성의 표현뿐 아니라 인성 및 품격을 평가하는 윤리적 규범으로서 인식되고 있었다. 둘째, 한국 젠더 가치관의 특징으로 강한 이분법적 고정관념과 다양한 젠더 가치관의 공존이 도출되었다. 셋째,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가치관이 윤리적 규범으로 인식되어 오면서 패션은 단순히 취향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예의와 규범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다양한 젠더 가치관이 공존하고 개인의 성향과 취향,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자신의 만족을 우선으로 하는 미적 태도 또한 중요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현대 패션은 옷차림을 통한 규범적 가치를 중시하는 한편, 다양한 패션 스타일을 단편적으로 경험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패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젠더, 한국 젠더 가치관, 한국 패션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BK21플러스 의류패션 전문 창조 인재 양성 사업팀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교신저자: 하지수, jisooaha@snu.ac.kr

접수일: 2017년 7월 14일, 수정논문접수일: 2018년 1월 22일, 게재확정일: 2018년 5월 31일

I. 서론

19세기 이후 산업중심주의의 자본주의 사회 및 개인주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젠더는 현대인의 자아의식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가치관이 되었다. 현대 패션은 젠더의 경계를 가지적으로 드러내는 주요 장이자 젠더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기능을 담당해왔으며, 젠더는 복식과 사회적 맥락에 대한 문화적 의미를 유추하게 한다는 점에서 복식문화 연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사회학적 관점에서 성과 복식문화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남성, 여성 복식 이분화의 기원 및 조형적 차이, 문화적 맥락에 대해 고찰하면서 특히 19세기 이후 현대 패션에서 남성복과 여성복의 차이에 주목하는데, 이 시기를 기점으로 복식의 발전 및 유행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패션은 젠더 표현의 주요한 장이 되어, 젠더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재정의해 왔으며(Wilson, 2003), 1780년대까지만 해도 남성 및 여성 복식은 외양이 다르더라도 컬러와 소재 등 유사한 미적 특성을 보이며 계급적 상징이 중요하게 인식됐으나 1840년대 들어서면서 남성 및 여성 복식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성 역할에 적합한 새로운 가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Kidwell & Steele, 1989).

그러나 서구에서 남성복과 여성복의 차이에 주목한 것과 달리 국내의 연구는 대부분 근현대 이후 복식 및 스타일의 변천에 주목하여 패션 산업의 연대기를 나열하는 기술적 접근이 대부분이다.

젠더와 복식에 대한 국내 의류학 연구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진행되었는데 첫째, 미학 및 페미니즘 측면에서 패션에 표현된 성을 분석하는 사례연구(Choi, 2006; Choi & Kim, 2006; Kang & Geum, 1996; Kim & Yim, 2015; Lee & Kim, 2005; Lee & Park, 1998)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젠더 개념을 단편적으로 차용하거나 서구의 현

대 패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 사회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성 역할에 따른 의복 이미지 추구 성향을 분석하는 실증연구(Cha & Kim, 1995; Lee, 1993; Lee & Park, 2006; Weon & Kahng, 1983; Yoon & Lee, 2000)는 마케팅 측면에서 연구되어 한국 복식문화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근현대 성 역할에 따른 복식의 특성을 살펴본 문헌연구(Lee, 2009; Lee, 2010; Lee & Lee, 2015; Yi, 2014)가 있는데, 복식의 조형적 특성 혹은 이미지 유형을 도출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의류학 이외의 분야에서 한국 근현대 젠더 정치에 따른 남녀 복식의 차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An, 2005; Eom, 2010; Kim, 2007; Kim & Kim, 2012)가 시도되기도 했으나 특정 시기만을 분석하고 있다.

젠더는 남성성 및 여성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을 반영하고 복식 형태와 패션 문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젠더와 복식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젠더 범주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활용되는데 첫째, 정신분석학 혹은 후기구조주의 관점에서 정체성의 형성에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대해 도출하거나 둘째, 이데올로기 비판적 관점에서 소수자나 약자의 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하는 경우이다(Kraft et al., 2000/2002). 본 연구에서는 젠더 범주가 가지는 문화적·정치적 속성을 통해 불평등의 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젠더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 복식사를 분석하는 한편, 심층 면접을 통해 오늘날 한국의 현대 패션과 젠더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서구 젠더 가치관에 대한 사적 고찰을 토대로 한국의 젠더 가치관의 특성을 구체화한다.

연구문제 2. 한국 근현대 젠더 가치관에 따른 남성, 여성 복식의 변화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3. 오늘날 현대 한국인의 젠더와 패션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젠더와 관련한 한국 패션의 문화적 특성을 밝힌다.

연구문제 1, 2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헌 연구를, 연구문제 3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심층 면접법을 통한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서적 및 연구논문, 인터넷 자료, 기사와 잡지를 활용했으며, 시대적 범위는 남성복 및 여성복 성적 특질과 성 역할에 따라 구분되기 시작했던 서구 19세기 이후, 식민사회 이후 본격적인 의재개혁이 시도되었던 한국 개화기 이후를 기준으로 하였다. 심층 면접 대상자는 사전 설문을 토대로 급변한 젠더 가치관의 실태를 반영하기 위해 20대 및 30대의 남성, 여성 총 22명을 모집하였다. 모집방법은 연구자의 지인 및 소개를 중심으로 한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그리고 눈덩이 표집 방법(snowball sampling)을 병행하고 자료 분석방법으로는 자료 전체에 일관된 지표체계를 부여하는 횡단적 지표화(cross-sectional

index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정보제공자의 인구통계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모든 면접은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과 생명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승인번호 IRB no. 1605/002-001),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에 대한 승인 하에 진행되었다.

II. 젠더와 패션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서구의 젠더와 패션

서구는 고대 플라톤(Plato)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철학을 토대로 이분법적인 젠더 가치관이 형성되었으며, 데카르트 합리주의와 계몽주의를 겪으면서 남성 및 여성에 대한 철학적, 사회적, 과학적 담론이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페미니즘 운동, 성 혁명과 하위문화 운동을 통해 이분법적 젠더 가치관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한다.

1) 페미니즘 운동과 의복개혁운동

서구 복식사에서 남성 및 여성 복식이 외형적으로 이분화된 것은 14, 15세기로 추정되나 본격

Table 1. 정보제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이름	연령	성별	직업	이름	연령	성별	직업
김지민	33세	남성	패션브랜드 운영	김선희	29세	여성	교사
이재준	34세	남성	주얼리 브랜드 운영	박범준	30세	남성	법무관
김노을	30세	여성	패션 에디터	강혁수	32세	남성	의류학과 대학원생
박수형	34세	여성	패션 연구원	이은아	27세	여성	의류학과 대학원생
최현진	31세	남성	멀티샵 브랜드 MD	박은솔	30세	남성	의류학과 대학원생
이영주	29세	여성	럭셔리 브랜드 MD	이수영	30세	여성	의류학과 대학원생
박경아	33세	여성	패션 연구원	김제이	31세	여성	의류학과 대학원생
최준희	31세	남성	디자인 작가	이윤재	30세	남성	의류학과 대학원생
한지혜	30세	여성	공무원	김가람	28세	남성	의류학과 대학원생
한동준	30세	남성	법무관	김소라	29세	여성	의류학과 대학원생
정해준	30세	여성	회사원	최세원	26세	남성	의류학과 대학생

*모든 정보제공자의 이름은 가명이다.

적으로 복식을 통해 남성 및 여성의 성적 특질 및 역할과 위계를 구분하는 개념으로 인지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이후이다. 18세기 이전까지 복식은 귀족 및 상류층 등 계급적 신분의 상징적 위계를 구분하는 의미가 더욱 컸으며, 19세기 들어서 남성들은 계몽주의 젠더 이분법에 근거해 성실성과 유능함, 단정함, 실용성, 자제력, 극기 등을 근대 시민의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성으로 규정하였고 코트와 바지로 구성된 근대적 수트를 수용하였다(Kim, M. J. et al., 2010). 근대를 기점으로 남성은 근대적 시민의 표상으로서, 여성은 남성의 사회적 계급을 위시하는 장식물로 취급받는다(Craik, 2003).

1850년대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의복개혁운동이 전개되면서 여성 복식에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한다. 초창기 의복개혁운동은 실베스터 그라함(Sylvester Graham)을 필두로 한 건강개선운동(health reform movement)으로부터 출발했는데, 개인의 책임감과 독립, 교육, 시민의 권리 등을 주창했던 건강개선운동의 정신은 많은 부분 의복 개혁가들의 동기와 실천적 목표가 된다(Leach, 1989). 이후 의복 개혁가들은 국가의복개혁협회(National Dress Reform Association)를 결성해 공식 매체인 『The Sibyl, 1856~1864』를 통해 각종 활동을 후원한다(Torrens, 1999). 『The Sibyl』는 단정한 스타일들의 복식을 소개하면서 복식 개혁을 통한 여성의 건강 개선뿐 아니라 흑인 노예 해방, 금연, 절제와 같은 운동에도 힘쓴다(Mott, 1938). 미국의 페미니스트 엘리자베스 밀러(Elizabeth Miller) 또한 여성 대안복식을 제안하여 여성복식의 개선을 주창한다. 밀러는 중동풍의 복식에서 착안하여 발목에 주름 잡힌 헐렁한 바지 위에 짧은 드레스나 스커트와 조끼를 입도록 권장한다. 이는 여성의 활동성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자전거 타기와 같은 스포츠 활동 또한 장려하였다(Gray & Peteu, 2005).

19세기 이후 복식의 근대화는 실용성과 편의성

을 추구하는 수트 형태의 남성 복식을 통해 표현되었기에 20세기 전반에 여성 복식의 근대화 및 양성평등적 가치의 표현은 남성복의 형태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2) 하위문화 및 반문화 운동과 의복개혁운동

젠더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복식을 통해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1960년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특히 1960년대 등장한 의복개혁운동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 동성애자 등 젠더에 대한 문제와 패션의 다양성을 더욱 확장시킨다. 1960년대 디자이너 루디 게른리히(Rudi Gernreich)는 남녀 모델이 똑같은 토폴리스 수영복을 착용한 룩을 통해 양성평등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유니섹스의 개념을 선보인다. 게른리히는 의복이 충분히 근본적인 형태만 되면 남녀공용으로 입혀질 수 있다고 보았다(Lee & Park, 1998). 1964년경 영국의 카나비 스트리트(Carnaby Street)를 중심으로 나타난 비트족(Beat generation)을 시작으로, 여성스러운 남성 패션이 유행하게 되면서 남성 복식도 화려한 컬러와 무늬, 부드러운 소재와 러플 장식을 사용하게 된다(Kim & Geum, 1998). 심리학자 어니스트 디히터(Ernest Dichter)는 패셔너블한 남성들을 묘사하면서 피코크 혁명(Peacock Revolution)이라는 단어를 통해 감정적으로뿐 아니라 의상학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남성의 자유를 말하였다(Alison, 1981/1986). 이는 1980년대 앤드로지너스 룩까지 이어져 남성 및 여성의 성 특질을 인정하고 상대방 성의 요소를 복식에 도입하는 형태로 나타난다(Lee & Park, 1998).

페미니즘 운동을 통해 시작된 초창기 의복개혁운동이 공식 매체와 후원 활동, 대안복식의 전파 등을 통해 여성 인권 향상의 가치를 주창하며 체계적으로 전개되었다면 20세기 후반 의복개혁운동은 패션 디자이너들의 콘셉트 차용과 패션 스타일의 일시적 유행에 가까워 실천적인 성격의 관점에

서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양성적 스타일은 크로스젠더 스타일의 극대화일 뿐 근본적인 젠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양성평등 가치의 성취로 보기는 어렵다(Paoletti & Kidwell, 1989). 유니섹스 룩 또한 본질적으로는 남성 복식의 형태에 가까웠다는 점, 남성 및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거부함으로써 개인의 가치까지 지웠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Arvanitidou & Gasouka, 2013). 또한 여성들이 남성복 요소를 차용하여 복식의 변화를 추구할수록 오히려 젠더의 경계를 극명하게 드러내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Hollander, 1994).

그러나 유니섹스 룩을 비롯한 앤드로지너스 룩, 젠더리스 룩 등은 시대의 양성평등적 젠더 가치관과 다원주의적 문화 가치가 복식을 통해 표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패션이 사회문화적으로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가치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패션은 사회적 위치나 젠더와 같은 상징적 경계를 유지 및 전복시키는데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다(Crane, 2000).

이처럼 젠더와 패션, 의복개혁운동의 성과와 한계 등 복식을 통해 젠더의 불평등한 위계 구조와 다양성을 확장하려는 시도들에 대한 담론은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현대 패션의 문화적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다.

2. 한국 젠더 가치관의 특수성

한국은 독특한 근현대사를 경험하였으며, 젠더 가치관 역시 서구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젠더 및 복식을 연구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한국 젠더 가치관의 특수성을 고찰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젠더 가치관 및 성담론에 대한 주요 연구는 여성 정책 및 여성해방운동의 성과에 치중되어 있고 의류학 분야에서 선행연구 또한 특정 시대와 인물에 한정되어 있기에

사회학 및 젠더학, 여성학 등 다양한 연구 분야의 관점을 통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문헌연구에서는 크게 한국의 여성해방운동 관련 자료(Institute of Gender Research SNU, 2013; Kang, 2005; Lee, 2005), 근현대 생활 및 문화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Jeon, 2004; Jo, 1988), 한국 사회의 젠더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진단(Bae, 2015; Hong, 2013; Lee, 2012; Lee, 2014; Yi, 2014), 한국 근현대 복식의 사회문화적 의미 고찰(An, 2005; Choi, 2011; Kim, 2007; Kim, E. J. et al., 2010; Kim & Kim, 2012; Kim, 2014; Kong, 2005; Lee, 2009; Lee, 2010; Park, 2016; Park, 2017; Yoo & Kim, 2000) 등의 서적 및 논문을 주로 참고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 젠더 가치관이 상황에 따른 이중적 구도와 복잡한 중층적 구조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이중적 구도

한국 젠더에 있어 큰 특징은 남성과 여성의 위계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이중적인 구도를 보이는 것이다. 유교를 기반으로 한 가부장 문화의 유습으로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나, 가정을 중심으로 한 사적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은 낯설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Kang(2005)은 한국 여성의 지위는 전통의 유습 때문에 아직도 사적 영역에서는 서양 여성들보다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단군 신화의 한 사상을 예로 든다. 끈기와 인내를 지닌 인물인 웅녀가 한국 여성들의 보편적 속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서양에서 남성신과 여성신이 대립적으로 묘사되는 것과 달리 단군신화에서는 상생의 관계로 묘사되고, 출산은 벌의 대가가 아닌 웅녀의 자술에 따른 것으로 그려진다는 점에 주목한다(Kang, 2005). Jo(1998) 또한 한국의

가부장제에 대한 논의는 항상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이 대립되어왔다는 점에 대해 언급한다. 하나는 ‘한국 여성들의 권한은 이미 너무 세어서 여권 신장은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으로, 이에 대한 근거로 전통적으로 모권이 강했다는 점, 여성이 결혼 후에 성을 남편 성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현대에 와서 여성이 가정 내 경제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다른 하나는 ‘한국 여성들은 극히 억압적인 가부장 사회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왔다’는 주장으로, 전통적인 칠거지악, 재가 금지법, 정절의 규범과 유교 문화권에서도 유일하게 아직까지 법적 보장을 받고 있는 호주제의 존속을 강조해 온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사실상 한국사회 가부장제의 모순은 여성의 권위가 공식적 권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에 있다(Jo, 1988).

사적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지위를 점하는 이중적인 젠더 구도로 인해 한국 여성해방운동은 여성들의 직업 활동 참여와 제도적 개선 등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인권 신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한국 여성해방운동은 서구와 달리 민족 해방과 국가 건설의 과제 속에서 성공적으로 출발하지 못하였다. 한국 여성들은 서구의 것을 그대로 모방한 현대적 헌법 제정으로 자동적으로 참정권을 얻게 되어 서구 여성들이 끈질기게 벌여 온 선거권을 얻기 위한 사회 운동을 벌일 필요도 없었으며 곧바로 이어진 전란으로 여성 운동이 일어날 여지는 더욱 사라졌다(Jo, 1988). 따라서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난 한국 여성해방운동은 상대적으로 여성 직업 활동이 침체되어있던 공적 영역에서의 법적 권한을 확장하는 것으로 전개된다. 그 성격 또한 한국 사회 특유의 국가주의적인 특징으로, 국가재건이라는 틀 아래에서 제도화되어 합법적이고 법제화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한국 여성해방운동은 정책 기능을 확장하는 활동이 중심이 되어 여성 단체들은 사단 법인화되었으며, 여성 운동가들 역시 여성부 관료나 공무원,

보좌관 등으로 진출하는 경향을 보인다(Jang, 2006).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한국 여성해방운동은 여성의 직업 활동 증가와 법 제도의 향상에 일조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실생활적인 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 복식의 변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오히려 사적 영역에서 여성의 인식은 ‘어머니’ 아니면 ‘창녀’라는 기준으로 이분화 되어 여성이 전통적 역할을 준수할 때에만 옳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특히 조선사회의 유교적 젠더 이데올로기와 근현대 시기 국가에서 주입한 젠더 사상으로부터 기인한다. 근대 초기 국가적으로 설정한 목표는 가족 단위 중심의 생존으로, 남성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산업화의 동력으로, 여성은 가정 개량과 자녀 교육에 힘쓰는 현모양처의 역할을 부여 받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국가건설의 기동으로 가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가정주부가 국가부흥을 좌우할 국민의 일원으로 간주될 때에만 여성의 지위는 상승하였다(Kim, 2006). 반면, 근대 초기 등장한 ‘신여성’, ‘모던 걸’과 같은 새로운 여성상은 현모양처로 대변되는 구여성과 대립되어 사회적 지탄을 받는다(Jeon, 2004).

서구 페미니즘 운동이 18세기말 참정권 획득과 같은 제도적 개선, 의복개혁운동과 같은 생활의 개선 등 다방면으로 구체화되었던 것과 달리 한국사회는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여성해방운동이 전개되어 오늘날까지도 여성에 대한 인식은 전통적 성 역할과 이미지를 대변하는 ‘현모양처’를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신여성 및 모던걸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Kim and Kim(2012)은 신여성이나 모던 걸이 서구식 의상과 장신구, 카페와 같은 소비 공간 등의 물질적 상품 소비를 즐겼으며, 이를 통해 주체적이고 근대적인 의식을 형성해 나갔음을 밝혔다. 또한 신여성과 모던 걸이 시도한 단발은 침략에 의한 식민화의 표상이었던 남성과 달리

근대적 신체를 재발견하게 해주는 계기였다고 평가되기도 한다(Kim, E. J. et al., 2010).

한국 사회에서 남성 및 여성의 위계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이중적인 구도를 보임에 따라, 한국 여성해방운동은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활동 증가 및 법적 제도의 개선에 따른 여성 상위의 구조를 역제하려는 듯, 정부 및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여성의 성 이미지를 전통적인 현모 양처에 국한시켜왔다. 따라서 여전히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실생활적인 측면에서 인식의 개선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 복잡한 중층적 구조

한국 젠더의 특징 중층적인 구조는 유교 가부장제, 일제 강점기 및 군사문화, 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 남성중심 사고 및 여성상위의 관점, 젠더 자체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는 몰젠더적 인식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서구 사회가 근대 시민사회의 구성, 구체제의 극복, 산업화, 민주화 등의 복합적인 근대화 과정을 비교적 장기간의 흐름 속에 맞이하게 되는데 비해 한국 사회는 압축적인 근대화를 경험하였다(Jun, 1998). 따라서 일반적으로 서구사회에서 가족을 매개로 한 사적 가부장제가 공적 가부장제로 이행되어 공적/사적 영역의 분리, 성차별적 사회화, 성별 분업 체계 등 다양한 층위로 재편되어 작동하는 것에 반해 한국 사회의 젠더 구조는 훨씬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Lee, 2012).

식민지를 통해 이루어진 한국 근대화는 사적 가부장제가 그대로 유지된 채 근대적인 공적 영역에 도입되었다(Lee, 2012). 일본 식민지 당국은 사적 가부장제가 그대로 유지하는 전통 사회의 젠더 구조와 근대화 과정을 접목시켰으며, 따라서 전통적인 사적 가부장제가 온존된 상태에서 식민지 공업화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성별 분업의 틀이 더

견고하게 되었다(Lee, 1990). 해방 후 한국 전쟁과 1960년대 이후 군사문화를 거치면서 남성우월적 젠더 구조는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1950년대 가족법 개정을 필두로 여성해방운동이 시작되고 특히 1980년대 이후 여성의 직업 활동과 소비 시장 및 고학력 여성의 증가로 청년과 여성이 새로운 소비주체로 주목 받게 된다. 1990년대 광고를 통해 여성의 소비는 개성의 포출, 당당한 자기주장과 연결되기 시작한다(Bae, 2015). 남성 우월적 사회 구조가 잔존하는 가운데 근대적 소비 경험에 앞섰던 여성들의 급격한 여권신장이 이뤄진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서며 정보사회 및 소비사회 이후 신자유주의적 변화 속에서 청년들은 근대적 젠더 관계가 규정하는 젠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안정되게 젠더 정체성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성장하지 않으며, 성별 고정관념이 끊임없이 악화되게 된다(Bae, 2015). 또한 현대사회에서 노동 세계가 더 이상 젠더 이분법의 논리에 종속하지 않음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은 젠더나 계급 보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기 시작한다(Hong, 2013).

압축적 근대화를 통해 구축된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젠더 구조로 인한 젠더 불평등 문제는 성 역할 붕괴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한국 사회 내에서 일관된 맥락으로 이해되기보다 남녀 간 추상적 대립만이 난무하는 몰젠더적 상태로 심화되고 있다.

3. 한국의 젠더 가치관과 복식

1) 개화기 이후: 국가주의적 젠더 정치와 복식 규제

개화기 이후 한국 복식은 한국전쟁 이전까지 크게 세 시기에 걸쳐 변화를 보이는데, 대부분 국가의 통제와 규제 속에 이루어진다. 먼저, 개화기 시기는 의제 개혁을 통해 남성의 양장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남성들 사이에서 양장과 한복이 공존

하던 때이며, 일제강점기 시기의 1920년대, 1930년대는 여성들 사이에서 서구 양장과 개량 한복이 공존하며 근대 소비문화의 태동이 시작된 때이다. 마지막으로 1940년대 전시체제에 맞추어 남성 및 여성 복식 모두 간소화되었다.

한국 근대 초기 가장 큰 특징은 국가의 주도 하에 근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서구와 달리 한국 근대사 초기는 신분제 문란, 민중의 봉기, 외세의 압력 속에 국가 공동체의 존립이 심하게 흔들림에 따라 가족 단위 중심의 생존이 개개인 삶의 목표가 되었다(Jo, 1988). 국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근대화의 근간은 국가주의적 젠더 정치에 있다. 국가의 효율적 재건을 위해 남성 및 여성 역할은 철저히 이분화 됐으며, 따라서 근대 초기 젠더 가치관은 조선 사회의 전통적인 유교 인식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일제 및 서구 사상이 유입되는 방식을 통해 구축된다. 유교적 젠더 이데올로기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정절을, 자식과의 관계에서 모성을, 부모와의 관계에서 효를 강조하여 중국적으로는 여성의 역할을 가족과 연관하여 단순화시키고, 탈주체화시키고, 탈성화시킨다(Jeon, 2004)는 점에서 젠더 차별적이었으며, 이는 복식의 근대화 과정에서도 반영된다.

여성이 근대화의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남성을 중심으로 서구 양장이 도입된다. 의제 개혁은 크게 세 차례 이루어졌는데,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간편한 옷으로 간소화시킨 목적이 컸다(Ko, 2001). 남성복을 중심으로 진행된 일련의 의제개혁들은 근대 교육과 지식을 가진 문명화 및 사회적 지배층의 지표였다(Kim, 2007). 그러나 여성 복식은 여전히 ‘어머니’와 ‘아내’로서 전통적 가치를 이어가는 한복이 고수된다.

일부 상류 여성들은 양장을 즐겼지만, 한국사회에서 근대화된 복식이란 실생활을 개선하기보다 서구식의 양장 형태가 우수한 미적 취향을 향유하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조됐다. 따라서 일부 상

류층 여성들에 의한 서양 복식 착용은 전통적 여성 역할에 대한 근원적, 관념적 변화가 아닌 서구 문물의 수용을 통한 과시적, 상징적 의미가 강조되었다(Lee, 2009).

여성 복식 개량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886년 미국 선교사에 의해 이화학당을 필두로 근대식 여학교가 세워진 이후였는데 풍속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짧은 저고리와 긴 치마를 착용하게 하였다(Ko, 2001). 192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생활 개선책의 일환으로 장옷 폐지가 거론되었으며 개량 한복이 제안되었고, 여학생들 사이에서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가 유행하면서 신여성을 규정하는 하나의 코드로 자리 잡는다(Lee, 2005). 그러나 남성 지식인층이 수용한 양복과 유행은 ‘문명화의 동참’이었으나, 여성들이 조선옷에 변화를 주고 양장의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서구적인 것을 외적으로만 모방하는 ‘여성 특유’의 사치와 허영으로 인식되었다(Kim, 2007). 국가가 요구하는 여성성이란 부족한 자원을 활용하여 근검과 절약을 실천하며,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자기의 욕구를 기꺼이 희생하는 자질을 의미했기 때문에 여성의 화려한 복장과 외모는 반사회적인 행위였다(An, 2005).

사회적으로 신여성과 모던 걸에 가해지는 비판적이고 일관되지 못한 분열적 시선과 비판은 오히려 한국의 근대 여성이 서구 문물의 유입과 전통성의 회복이라는 시류 속에서 한국적인 여성 정체성을 모색하게 해주는 계기로써 작용한다. 1940년대 들어 전시 체제의 총력전에 대비하여 남성 및 여성 복식 모두 대폭 간소화되고 해방 이후 곧바로 이어진 6.25 한국 전쟁으로 극심한 물자부족 시대를 겪어 패션의 암흑기를 가지게 되면서 1920년대와 1930년대 여성들이 주체적인 복식 개량 움직임과 신문화에 대한 열망은 1970년대 이후 여권의 본격적인 신장에 힘입어 더욱 주체적인 여성성을 모색하게 되는 계기로 이어지게 된다.

2) 한국 전쟁 이후: 젠더 가치관에 대한 저항 및 패션의 다양화

한국 전쟁 이후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사회적 격동과 문화적 변동을 맞이하게 되며 여권 신장 및 민주화와 더불어 젠더 가치관이 점차 약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196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군사정권이 장기화되고 새마을운동의 전개와 더불어 경제 성장과 국가 재건의 목표가 설정되면서 생계부양자와 생산자로서 강한 남성과 가정의 기틀을 잡는 현모양처로써 기존의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이 미디어를 통해 다시 강조된다. 그러나 가족법 개정을 필두로 1970년대 이후 여성해방운동이 본격화되어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고 88 서울올림픽 및 한국 야구 개장으로 스포츠와 여가 문화가 확산되면서 급격한 젠더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고, 더불어 패션 또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국내 패션 산업의 성장과 해외 수입품의 개방으로 여성들은 교육과 직업, 패션과 소비에서 유행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이끈다.

이미 1920년대, 1930년대 근대 시기 서구 양장을 세련된 미적 취향과 모던으로 인지한 여성들은 서구 패션과 문화에 대한 강한 동경을 드러냈다. 단발 헤어스타일과 파마, 다양한 화장법이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정절을 요구하던 전통적 젠더 가치관에 반하여 여성적 섹슈얼리티와 가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의 추구가 근대적 여성성으로써 인식되기 시작한다.

1967년 미국에서 귀국한 가수 윤복희가 처음으로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타나면서 혁명파도 같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Chung, 2011). 이 시기 미니스커트의 유행은 가부장제의 굴레 속에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던 대다수 어머니 세대에 대한 젊은 여성들의 저항의 의미이자, 사회변화 및 근대성을 수용해 자신의 경제적 조건 및 상황에 맞춘 여성들의 고민을 담은 것이었다(Kim & Kim, 2012).

서구와 달리 일찍이 몸빼를 통해 여성이 바지를 입은 모습이 자연스러웠고 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여성에게 금기 되는 복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니스커트의 유행은 남성들의 장발과 함께 정부 단속의 대상이 되며, 여성들의 섹슈얼리티 발현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고 저항적인 시도로 간주되었다. 서구에서 19세기 말 활동성과 실용성을 강조한 바지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인권에 대한 주장이자 자유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는 상징적 복식이었다면 한국 여성에게 미니스커트를 통한 섹슈얼리티의 발현은 여성의 주체성과 사회적 참여를 드러내는 문화적 코드였다.

정부는 1883년부터 외국인의 투자비율을 100% 전면 허용하고, 대외송금 규제를 없애는 등 외자관련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여 본격적인 자본 자유화의 길을 열었다(Institute of Historical Studies, 1995). 기존의 성 윤리나 가족윤리 등의 규범에 얽매이기를 싫어하며, 개인주의적인 집단인 오렌지족을 필두로 신세대, X세대 등이 주목을 받게 된다(An & Yang, 2001).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기존의 가치관과 규범에 반발하고 개성을 중시하는 태도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남성 및 여성의 성 역할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 또한 흔들리기 시작하고 특히 생계부양자로서 강하고 독립적이며 올곧은 이미지를 추구하는 남성성이 약화된다.

젠더 가치관의 변화는 여성 패션뿐 아니라 오랜 기간 양복 착장이 기본으로 유지되던 남성 패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198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해외문호의 개방과 함께 자유롭게 개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소비문화의 풍조가 확산되었으며, 다양한 패션의 유행만큼이나 젠더 가치관 역시 기존의 전통적 통념에 거부하거나 대안을 모색하는 등 복합적 양상을 보이게 된다.

III. 한국의 젠더 가치관과 패션에 대한 실증적 고찰

한국의 젠더 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젠더가 패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심층 면접법을 토대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비 질문으로 간단한 인적정보(Shin, 2012)와 도입질문으로 성격 및 가치관, 직업적 활동에 대한 문항(Roach-Higgins & Eicher, 1992), 전환질문으로 패션 취향 및 젠더 가치관 문항(Arthur, 1999; Ham, 2007; Weinraub et al., 1984)을 구성하였으며, 주 질문은 추구하는 젠더 가치관, 젠더와 패션의 연관성 등의 문항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접 대상자는 사전 설문문을 바탕으로 20대 및 30대의 남성 및 여성 각 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젠더 가치관의 문항들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성 역할 및 성 이미지의 개념이 주요하였다. 성 역할(gender role)이란 남성 및 여성의 특징으로서 적합하다고 여기는 사회적인 신념 또는 고정관념이 일상생활의 역할에 반영된 것(Berk, 2009)을 말하며, 또한 성 이미지(gender image)란 개인이 자기 성에 대해 갖는 지각, 경험, 신념의 결과로서 성격 특성에 대한 지각(Loudon & Della Bitta, 1984)을 의미한다. 젠더 가치관에 따라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 및 중시하는 의복 가치,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한국 젠더 가치관의 특징 및 한국 패션의 문화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1. 한국 남성 및 여성의 젠더 가치관

1) 전통적 성 역할에 대한 인식

면접자 대부분은 과거의 전통적인 성 역할을 크게 고수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으며, 가정에서 경제적 책임, 가사 및 요리를 분담하는 맞벌이 가정을 추구하였다.

“역할을 나눠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여자랑 남자랑 다른 거는 그냥 여자가 애를 낳는 거 밖에 다르다고 생각해 본 게 없거든요” (이재준, 남성, 34세)

“평등적인 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박수형, 여성, 34세)

그러나 빨래와 요리, 실거지 등 가사에 대한 일의 분담을 평등하게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별개로 남성이 경제적 책임을, 여성이 육아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답변하는 면접자들이 많았다.

“남자든 여자든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어느 한 쪽이 희생을 해야 한다면 남자는 경제활동에, 여자는 육아에 신경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한동준, 남성, 30세)

“집안일은 적성에 맞게.. 근데 사회적으로는 남자가 일하고 집안에서 여자가 아이를 키우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한지혜, 여성, 30세)

면접자들은 평등적인 성 역할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통적인 성 역할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 세대 및 과거 유습으로부터 습득한 생활 문화를 따라 남성 및 여성의 일을 전통적 성 역할과 부합하게 구분하는 것이 사회의 효율적 운영과 개인의 선택에 있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2) 전통적 성 이미지에 대한 인식

면접자들은 전통적인 남성 이미지에 대해 공통적으로 ‘리더십 있는’, ‘주도적인’, ‘능력이 있는’ 등과 같은 형용사를 통해 묘사하였다. 그러나 남

성 면접자들은 개인의 성격과 신체적 특성에 따라 전통적 남성 이미지를 추구하거나 회피 및 거부하는 등 다양한 태도를 보였다. 전통적인 남성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추구하는 경우, 전통적인 남성상이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성격 면에서 본인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였다.

“내 목소리가 낮고 저음이다 보니까 대화하는 걸로 남자다운 것 같다는 이미지를 많이 주는 거 같아요.” (이재준, 남성, 34세)

일부 남성 면접자들은 전통적인 남성 이미지를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 때, 주변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받아 본 경험이 있어, 전통적인 남성 이미지에 부합해야 한다는 억압이나 의무감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남자는 운동도 해야 되고 약기도 해야 되고.. 부모님은 저한테 거부장적인 장남의 역할을 추구했는데, 전 그게 안 맞더라고요.” (이윤재, 남성, 31세)

전통적 남성 이미지를 회피하는 경우, 자라온 환경으로 인해 전통적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거나 전통적 남성 이미지가 본인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남성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몸도 좀 크고 근육도 있고 수염도 있고.. 근데 제가 그런 게 없잖아요.” (최준희, 남성, 31세)

전통적인 남성 이미지를 거부하는 경우, 양성적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위라는 것에 대해 인지하면서도 개인의 직업적 특성 및 가치관에 따라 의도적으로 전통적인 남성 이미지를 추구하지 않았다.

“약간 양성, 그러니까 중간 정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이 업계(패션)에 있을 때 여성성이 너무 강하면 여성보다 약하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 있고 남성성이 너무 세면 남성은 배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성성을 유지하려고 하죠.” (김지민, 남성, 33세)

여성 면접자들은 전통적인 여성 이미지에 대해 ‘세심한’, ‘배려하는’, ‘상냥한’ 등과 같은 형용사를 묘사하였다. 전통적인 여성 이미지를 수용하는 경우, 현모양처 이미지를 묘사하였으며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자주 들어왔다고 답하였다.

“따뜻하고 좀 온화하고 배려심이 있는 여성.. 어머니 같은 느낌도 있을 수 있고요.” (김선희, 여성, 29세)

몇몇 여성 면접자들은 전통적인 어머니 상 외에 특정 여성 이미지에 대해 ‘여우같은’, ‘내숭 떠는’, ‘치장하는’, ‘우악스러운’ 등 개인에 따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정 여성 이미지를 기피하면서도 여성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한 면접자들은 ‘씩씩한’, ‘귀여운’, ‘중성적인’ 등의 여성 이미지를 추구하였다.

“저는 그런 여성적인 걸 추구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떤 연약하고 소위 말해서 청순한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오히려 강하고 진취적인, 카리스마 있는?” (정해준, 여성, 30세)

또한 남성 면접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부 여성 면접자들은 여성 이미지를 추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거나 여성 이미지를 추구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정확하게 추구하는 여성상, 롤모델은 없어요. 굳이 여성적인 걸 표출해야 하나 싶어요. 여성이라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이었으면 해요.” (박수형, 여성, 34세)

일부 여성 면접자들은 전통적인 여성 이미지 및 특정 여성 이미지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보였다. 따라서 ‘강인한’, ‘독립적인’, ‘시크한’ 등 전통적인 남성 이미지에 가까운 이미지를 추구하거나 중성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는 여성적인 게 다 싫어요 성격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취미도 그렇고.. 씩씩하기보다 보이시한 걸 추구해요.” (이영주, 여성, 29세)

면접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 남성이란 ‘신체 건강하며, 리더십 있는 다재다능한’, 전통적 여성이란 ‘주변을 배려하는 따뜻하고 우아한’ 이미지로 확인되었다.

면접자들은 성 이미지를 추구하는 데 있어 다양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구하는 성 이미지가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에 대한 태도를 선택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에 대해 긍정적인 경우, 개인의 신체적 특성 및 성격이 전통적인 성 이미지와 유사하였다. 한편, 일부 면접자들은 전통적인 성 이미지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나 전통적인 성에 부합하는 행동이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추구할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다고 답변하여 젠더 가치관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을 거부하는 면접자들은 소속된 집단이나 자라온 환경, 주변의 평가 같은 외부적 요인보다 개인의 성격과 성향에 의한 선택인 경우가 많았다.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성 이미지에 부합하는 행동과 성격,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 자율적인 경향을 보여, 과거보다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한국 젠더 가치관의 특징

1) 강한 이분법적 고정관념

많은 면접자들은 성 역할 및 성 이미지 등 젠더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자신이 남성적 혹은 여성적 성격과 이미지와 관련하여 긍정적, 부정적 반응을 받아보거나 타인에 대해 평가해본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정말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남자답다, 여자답다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거는 남자, 여자 성 역할이 많이 달라지고 변화되어도 마치 차갑다, 뜨겁다 이런 그 자체에 뜻이 있는 형용사처럼 이미 고정관념처럼 굳어져 버린 표현인 거죠.” (한동준, 남성, 30세)

또한 주변 사람들로 부터 받는 평가와 경험을 통해 전통적인 남성 및 여성 역할 및 이미지를 고수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분위기라는 것을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저는 여자들은 보통 리액션을 잘하고 이모티콘도 쓰고 어우깁고 상냥한 이미지고 남자는 너살 좋고 내 것만 챙기는 것도 아니고 두루두루 인간관계 좋은 이미지인 것 같아요.. 전형적인 남성, 여성.. 그런 사람이 좀 더 유리한 사회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한지혜, 여성, 30세)

면접자들의 답변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젠더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성격 및 외모, 행동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평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일부 면접자들은 전형적인 남성 및 여성 고정관념을 따르는 것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데 유리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 고찰의 한국 젠더 특수성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으

로, 남성 및 여성의 성 역할이 변화하는 것과 상관 없이 남성 및 여성 모두 전통적인 성 이미지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게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가치관은 개인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섹슈얼리티를 표현하는 수단이기 보다 사회적 규범에 부합하고자 하는 일종의 윤리적 규범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따라서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을 드러낼 때 타인 및 소속 집단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는 젠더에 있어 여전히 강한 이분법적 고정관념이 잔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다양한 젠더 가치관의 공존

앞서 한국 젠더 가치관의 특징으로 남성 및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고정관념이 강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많은 20대, 30대 남성 및 여성 면접자들은 남성 및 여성의 특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과 별개로 과거의 억압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부분의 20대, 30대 남성 및 여성 면접자들은 다양한 남성 및 여성 역할과 이미지에 대해 개인이 선택권을 가지는 것과 그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저는 전통적인 남성, 여성 이미지를 좋아하는 태도 그런 걸 저한테 강요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제가 그걸 선택한 것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은아, 여성, 27세)

또한 일부 면접자들은 문화적으로 남성 및 여성의 역할과 이미지에 대한 사상이 변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과 구조적 장치가 전통적인 가치를 강조하여 어쩔 수 없이 순응해야 하는 분위기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젠더 경계가 작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게이문화가 없잖아요. 다만 사상은 그렇지 않은데 시스템은 여전히 전통적이라고 생각해요. 남자가 가사일하고 육아일 하라고 했을 때 싫다고 할 사람들은 많이 없지만 사회적 시스템은 그렇게 못하게 만들죠.” (강혁수, 남성, 32세)

한편, 일부 면접자들은 과거와 비교해 현대사회에 들어설수록 젠더 가치관을 추구하는데 있어 개인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어떤 스테레오 타입을 깨고 사람들이 자기 성향을 찾아야 하는 것 같아요.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라는 태두리 없이 그냥 인간으로서 인정받는 문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김노을, 여성, 30세)

한국사회의 젠더 인식에 관한 두 번째 특징으로 다양한 젠더 가치관이 공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대, 30대의 남성 및 여성 면접자들은 전통적인 남성 및 여성 역할과 이미지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지는 않으나, 개인의 성격과 가치관, 적성에 대한 존중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젠더 가치관을 선택하고 추구하는 것보다 개인이 자신만의 가치관과 성향, 능력과 재능을 표출하고 이를 인정하는 문화의 중요성을 언급해 사회적으로 젠더 가치관이 가지는 의미 자체가 약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특징은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한국 젠더의 특수성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젠더 가치관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퇴색됐음을 알 수 있었다.

3. 젠더를 통해 본 한국 패션의 특수성

1) 예의와 규범 중시

면접자들은 패션 스타일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빈번하며,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거나 통념적인 기준을 넘어 과한 스타일을 추구할 때 단순히 취향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인격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지금은 오히려 튀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해요... 특이한 스타일을 입어서 보기 불편하다고 하면, 그것도 피해를 끼치는 거죠.” (최세원, 남성, 26세)

또한 공적인 자리나 행사에서의 패션 스타일은 예의와 격식을 차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에 어울리는 차림으로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거의 풀정장이예요. 벨트하고 타이 메고 좀 더 격식 있는 자리면 셔츠 카라까지 신경을 써요.” (박범준, 남성, 30세)

면접자들은 패션을 추구하는 데 있어 정형화된 성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나 집단의 기준에 준수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답변하였다.

“패션을 통해 어떤 이미지를 추구하기보다 여성스럽게 보이는 게 제일 무난해서 입어요.” (김선희, 여성, 29세)

한국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성 역할 및 성 이미지는 오랜 기간 고착화되어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젠더 가치관을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것은 예의가 없거나 상식을 벗어나는 사

람이라는 관념을 강하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는 공적 행사가 빈번한 집단주의적 문화가 강하며, 옷차림을 통한 예의와 규범이 중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자기만족적인 취향 추구

면접자들 대부분은 의복이 자신을 표현하고 정체성을 모색하는 한 수단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도 개성과 취향을 추구하는 것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다양한 미적 가치와 취향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저는 패션은 자기한테 어울리는 걸 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남이 뭘 하고 있던 이해하려고 해요.” (이재준, 남성, 34세)

일부 면접자들은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이 전통적인 성 이미지 및 사회적 통념에 벗어난다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사회적 시선 및 타인의 평가에 개의치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즐겼다.

“옷 입는 걸 가지고 ‘나 양성성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걸 표현하려는 것은 아니고, 사회의 통념이나 규격화된 질서를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니야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크죠.’ (김지민, 남성, 33세)

일부 면접자들은 새로운 패션 경험에 대한 적극적인 욕구를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남성복과 여성복 디자인을 구분하는 특정 실루엣과 컬러, 패턴, 아이템을 벗어나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는 새로운 패션 스타일을 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성복, 여성복 매장 구분이 없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구분이 없어지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질 것 같거든요.” (김소라, 여성, 28세)

한국사회는 최근 급격한 문화적 성장과 사회적 변동을 겪으면서 다양한 가치관과 소비문화, 취향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진 것에 비해 비주류적인 취향 및 패션 스타일, 취미를 깊이 있게 경험할 기회가 부족하였다. 대부분 면접자들이 획일적인 집단주의적 문화를 경험하면서 의복이나 패션이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거나 고민하여 드러내기보다 다양한 미적 취향을 일회적으로 경험하는 것에 만족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IV. 결론

지난 수년간 한국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은 많이 허물어졌으나 가정에서 남성이 경제적 소득을, 여성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었다. 또한 남성 및 여성의 성격, 행동, 역할 등을 구분하는 고정관념이 남아있어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가치관은 성적 정체성의 표현뿐 아니라 인성을 평가하는 윤리적 규범으로서 인식되고 있었다.

한편, 젠더 가치관은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젠더 가치관은 남성 및 여성에 대한 강한 이분법적 고정관념이 남아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억압이나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성 역할 및 성 이미지를 추구 및 거부하거나 혹은 젠더 인식이 부재하여 다양한 젠더 가치관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가치관은 남성 및 여성의 성격, 행동, 역할 및 능력을 평가하는 윤리적 규범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의 사회문화적 변화로 다양한 젠더 가치관이 공존하게 되면서 자신의 안녕과 만족을 우선으로 하

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가치관은 개인을 평가하는 윤리적 규범으로 인식되어 왔고 패션은 단순히 자신의 취향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예의와 규범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젠더 가치관이 공존하고 개인의 취향,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문화와 자기만족적인 태도가 확산되면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취향과 패션 경험에 대한 욕구 또한 높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젠더의 특수성을 통해 복식사를 고찰한 결과, 한국 현대 패션은 옷차림을 통한 예의와 격식 등 규범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이 강한 한편, 유희적 측면에서 다양한 취향과 패션 스타일을 단편적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문화적 특성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패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규범적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다양한 패션 스타일과 새로운 취향을 추구하는 한국 패션의 이중적인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볼 때, 패션 브랜드에서 디자인 및 상품 기획하는 데 있어 기존의 분석 및 세분화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색다른 매장 구성 등 소비자 욕구를 정성적 측면에서 반영하는 시도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젠더학 및 사회학, 의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울러 한국 젠더 가치관의 특수성을 도출하고 20대, 30대의 남성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 젠더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를 20대, 30대의 젊은 연령층 및 22명으로 국한시킨 제한적인 연구였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연령 전반을 아우르며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참여자를 활용해 연구

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References

- Alison, L. (1986). *의복의 언어* [Language of clothes] (Jo, H. J., Trans.). Seoul: Kyungchoon Publishers. (Original work published 1981)
- An, S. K., & Yang, S. H. (2001, October). The Americanization and the discipline power in Korean modern clothing culture. *Proceeding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Conference, Seoul*, 37.
- An, T. Y. (2005). Wartime control on women's fashion during the late colonial period: Mompei enforcement and women's strategy of femininity. *The Journal of Korean History*, 74(-), 5-29.
- Arthur, L. B. (1999). Dress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gender in two sororiti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7(2), 84-93.
- Arvanitidou, Z., & Gasouka, M. (2013). Construction of gender through fashion and dressing. *Mediterran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4(11), 111-115. doi:10.5901/mjss.2013.v4n11p111
- Bae, E. K. (2015). Gendering 'young generation' discourses: Focusing on the concept of masculinity. *Gender and Culture*, 8(1), 7-41. doi:10.20992/gc.2015.06.8.1.7
- Berk, L. E. (2009). *Child development*. Boston: Pearson.
- Cha, J. H., & Kim, J. S. (1995). An ex post facto relational study of genderlogy, and gender identity of clothing and attitudes toward unisex cloth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19(5), 738-746.
- Choi, J. H. (2006).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masculine factors in women's fashion.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8(5), 513-522.
- Choi, K. H., & Kim, M. J. (2006). *Socio-semiotic analysis of plural sexuality represented in modern fash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Choi, S. A. (2011). The traits of Americanization in modern Korean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1(3), 1-19.
- Chung, C. S. (2011). History of Korean modern fashion trend: How Korea's modern fashion evolved and influenced women's apparel 1950's to curr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9(2), 17-24.
- Craik, J. (2003). *The face of fashion: Cultural studies in fashion*. London: Routledge.
- Crane, D. (2000). *Fashion and its social agendas: Class, gender, and identity in cloth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om, M. O. (2010). Politics of clothing in 『Free madam』. *Korean Literary Theory and Criticism*, 14(2), 311-334.
- Gray, S. H., & Petcu, M. C. (2005). "Invention, the angel of the nineteenth century": Patents for women's cycling attire in the 1890s. *Dress*, 32(1), 27-42. doi:10.1179/036121105805253080
- Ham, H. K. (2007). *The fashion-taste and distinction of anti-fashion consum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 Hollander, A. (1994). *Sex and suit*. New York: Alfred A.
- Hong, C. S. (2013). Individualization and 'gender societ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7(1), 255-276.
- Institute of Gender Research SNU. (2013). *경계의 여성들: 한국 근대 여성사* [Women in the border: Modern Korean women's history]. Paju: Hanul Publishing Group.
- Institute of Historical Studies. (1995). *강좌 한국 근현대사* [Lecture of Korea modern history]. Seoul: Pulbit.
- Jang, M. K. (2006). *한국 여성운동과 젠더 정치* [Korean feminism movement and gender politics].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ess.
- Jeon, K. O. (2004). *한국여성문화사 (Vol. 1)* [Cultural history of Korean women (Vol. 1)]. Seou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Jo, H. J. (1988). *한국의 여성과 남성* [Korean man and woman]. Seoul: Moonji Publishing.
- Jun, B. J. (1998). 한국 사회에서의 전통과 현대 [Tradition and modernity in Korean society]. *Journal of Social Research*, 1(-), 9-25.
- Kang, J. H., & Geum, K. S. (1996). A study on the feminism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30(-), 211-225.
- Kang, S. J. (2005). *한국 여성 해방 이론: 유토피아에서 헤터토피아로* [Korean feminism theory: From utopia to heteropia]. Seoul: Jisik.
- Kidwell, C. B., & Steele, V. (1989). *Men and women: Dressing the part*. London: Booth-Clibborn Editions.
- Kim, E. H. (2006). 서평: 생활세계의 근대화와 현대적인 여성성의 등장: 『한국현대여성성의 일상문화』. [Book review: Modernization of life world and modern women: 『The everyday culture of modern Korean women』]. *Feminism and Korean Literature*, 15(-), 363-380.
- Kim, E. J., Yoon, T. Y., Ko, S. J., & Koh, A. R. (2010). A study of the historical formation and characteristics of modern Korean consumption culture: Focused on consumption related to dre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4(11), 1786-1797.
- Kim, H. J., & Yim, E. H. (2015). Gender identity expression in contemporary men's fashion: Focus on Judith Butler's gender identity theo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5(3), 47-61.
- Kim, J. B. (2014). *거품과 냄비: 한국패션의 문화정치학* [Bubble and pot: Cultural political analysis of fashion in Korea]. Seoul: Hakmins.

- Kim, K. O., & Geum, K. S. (1998). A study on the androgynous expressed in contemporary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36(-), 239-262.
- Kim, M. J., Choi, H. S., Kim, Y. H., Ha, J. S., Choi, S. H., & Go, H. J. (2010). *서양 복식 멀티 콘텐츠* [Western costume multi-contents]. Paju: Gyomoon Publishers.
- Kim, S. J. (2007). Reading the transformations of women's clothes in postcolonial Korea: Gender politics of tradition and modernity. *Issues in Feminism*, 7(2), 281-320.
- Kim, Y. C., & Kim, J. H. (2012). Making sense of modern fashion and consumer culture through women's magazines of the 1960's. *Communication Theories*, 8(2), 154-196.
- Ko, B. J. (2001). *우리 생활 100년: 옷* [Our life 100 years: Clothing]. Seoul: Hyeonam.
- Kong, J. O. (2005). The making of "the national citizen" and the regulation clothes in Korea under Japanese imperial rule: The oppression of Baekui(White Robes) and the promotion of the Kukminbok(national suit). *Society and History*, 67(-), 41-83.
- Kraft, H., Braun, V., & Stephan, I. (2002). *젠더 연구: 성 평등을 위한 비판적 학문* [Gender-studien: Eine einfuehrung] (Tak, S. M., Kim, R. O., Jang, C. I., & Jang, M. Y., Trans.). Paju: Nanam Publishing House. (Original work published 2000)
- Leach, W. (1989). *True love and perfect union: The feminist reform of sex and society*. Middletown: Wesleyan University Press.
- Lee, H. G., & Park, G. S. (1998). *A study on the sexual confusion through contemporary fash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University, Daejeon.
- Lee, H. J., & Park, O. R. (2006). The relationship of factor of feminization in men's fashion and sex role stereotype: The viewpoint of 20's~30's wome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5(5), 775-782.
- Lee, H. K. (2005). *신여성: 매체로 본 근대여성 풍속사* [New woman: Culture history of Korean modern woman based on media perspective]. Seoul: Hankyoreh.
- Lee, H. N., & Lee, Y. Y. (2015). Ideal image and fashion of Korean women in the 1970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9(5), 641-655. doi: 10.5850/jksct.2015.39.5.641
- Lee, J. H. (2009). A study on the gender role changes of Korean women reflected on women's costume design during 20th century.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7(3), 431-446.
- Lee, J. H. (2010). Diachronic analysis of Korean men's wear design based on changes in gender ro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0(8), 51-66.
- Lee, J. O. (1990). *Segmentation by nationality and gender in industrial wage labour sector in Korea under the Japanese rule, 1910-1945*.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Lee, J. O. (2012). 한국 근대화의 젠더구조와 이 태영의 히스토리 [Korean gender structure and her story of Lee Tae Young]. *Hyonsang-gwa-Insik*, 36(3), 83-107.
- Lee, M. H. (1993). Clothing image preferences and sex role identity of Kore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17(3), 367-379.
- Lee, N. Y. (2014). Multi-layered gender inequalities in Korean society: 'Myth' of equality and women's positionality in flux.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30(4), 1-45.
- Lee, Y. H., & Kim, Y. I. (2005). Gender identity expressed in contemporary fashion.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3(5), 790-803.
- Loudon, D. L., & Della Bitta, A. J. (1984). *Consumer behavior: Concepts and applications*. New York: McGraw-Hill Companies.
- Mott, F. L. (1938). *A history of American magazines, 1850-1865 (Vol. 2)*.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aoletti, J. B., & Kidwell, C. B. (1989). Conclusion. In Kidwell, C. B., & Steele, V. (Eds.), *Men and women: Dressing the part* (pp. 158-161).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 Park, S. M. (2016). A study on Nora Noh fashion and Korean modern fash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edia (1):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media related to Nora Noh between the 1950's and 1990'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6(4), 89-108. doi:10.18652/2016.16.4.6
- Park, S. M. (2017). A study on Nora Noh fashion and Korean modern fash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edia (2):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media related to Nora Noh between the 1950's and 1990'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7(2), 89-109. doi:10.18652/2017.17.2.6
- Roach-Higgins, M. E., & Eicher, J. B. (1992). Dress and identity.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0(4), 1-8.
- Shin, H. Y. (2012). *The fashion tastes of the upper-middle class women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Torrrens, K. M. (1999). Fashion as argument: Nineteenth-century dress reform. *Argumentation and Advocacy*, 36(2), 77-87. doi:10.1080/00028533.1999.11951639
- Weinraub, M., Clemens, L. P., Sockloff, A., Ethridge, T., Gracely, E., & Myers, B. (1984). The development of sex role stereotypes in the third year: Relationships to gender labeling, gender identity, sex-types toy preference, and family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55(4), 1493-1503. doi:10.2307/1130019
- Weon, M. S., & Kahng, H. W. (1983). The relationship between unisex clothing behavior and sex role of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7(2), 89-96.
- Wilson, E. (2003). *Adorned in dreams: Fashion and*

- modernity*. London: IB Tauris.
- Yi, J. Y. (2014). The ideal image and fashion of the 'new woman' in Korea in the 1920s and 1930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4(7), 172-183. doi:10.7233/jksc.2014.64.7.172
- Yoo, H. K., & Kim, M. J. (2000). *한국복식문화사* [Korean history of costume and culture]. Paju: Gyomoon Publishers.
- Yoon, E. A., & Lee, S. J. (2000). A study on clothing behavior and clothing image of out/inner wear according to sex role stereotyp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4(2), 152-163.

Korean Modern Fashion and Gender Value

Huh, Ye Eun · Ha, Ji Soo*

Master,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cultural insight of Korean modern fashion by using a gender category. Based on the literature research, it revealed that Korea's fashion has been chang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gender value. Since 19th century, the Korean government has regulated the gender role while the dress code policy has been differently applied. However, as the gender value changed after 1970s, various fashion style appeared.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gender perception of the Korean society. Interviewees were 11 men and 11 women in their 20s and 30s in order to examine their gender perception. As a result, it revealed that traditional gender value in the Korean society is not only a means of expressing sexual identity but also criteria of an ethical norm. However, the various gender values reflect that the importance of gender value has been weakened. Secondly, as a result of examining relation between gender value and preference for fashion style, it revealed that the attitude toward gender value had influence on a fashion style. Also, it has been found that fashion was not only a means of expressing their tastes and identities but also an important means of expressing courtesy and norms. However, aesthetic attitude prioritizing one's own satisfaction is also considered importa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gender and modern fashion in Korea through interviews. Derived from this study were the specificity of Korean gender values and cultural characteristic of Korean modern fash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conducive to future research on fashion culture study trying new interpretation of Korean fashion.

Key words : gender, Korean gender value, Korean fashion

